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 얼음 깨기

### 성찬 예식을 생각하며

### 교회행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의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고백했던 시간들을 나누어 봅니다.

1.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셨었나요?
2. 나를 위한 살과 피를 묵상하며, 깨닫고 누리게 된 은혜는 무엇인가요?

#### 11월

1,4일	성례교육
5일	성례식
12일	성찬식
19일	추수감사주일/찬양축제
25일	결혼예비학교 시작

#### 12월

10일	목장 방학 / 어와나 종강
24일	성탄전야
25일	성탄
31일	송구영신예배

### 경배 찬양

### 피난처 있으니

- (1)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 (2)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만 발하면 천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 (3)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 (4)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롭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 소식

1. **전도회** 2024년을 위한 새로운 남/여 전도회가 편성되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악 예배** 수요일예배는 베드로 남성중창단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3. **추수 감사** 다음 주일은 지난 1년을 은혜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일 4시에 함께하는 축제에 함께해주세요.
4. **사교시** (사실 교사 교육의 시간이 필요해) 교사 세미나 및 헌신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11/21, 28, 12/5 => 저녁 7시30분 다윗의 노래 & 12/13(수) 교사 헌신예배

### 선교

### [정동준 선교사]

#### 주간다

1. RTC개강과 무실림 소말리 난민에게 성경공부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도록
2. 우물을 통한 사역이 다른 마을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3.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정직하고 성실한 열정의 선교사가 되도록
4. 가족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 한문장 큰 울림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바로 큰 일이다.**

**오스왈드 챔버스 (1874-1917)**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

##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기 9장 10절)

**규범적 지혜** -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법칙, 원리. 인간의 생활 환경 안에서 주로 관찰되는 것을 통해 삶의 규칙을 끌어내어 인간의 삶에 적용함 (잠언 / 계절 변화, 인과응보)

**반성적 지혜** - 하나님은 그 원리와 법칙 안에 갇혀 계시지 않음. 인간의 삶의 영역 바깥의 세계마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강조함. (욥기 / 욥의 고난, 의로워도 고난 받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법칙, 원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리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판단, 예측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방식대로 무언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 1\_부분만 알 때의 위험성

욥의 친구들은 그저 규범적 지혜에 갇혀, “네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거야”라는 가슴 아픈 말을 사정 없이 쏟아놓습니다. 심지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기 8:10)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만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는 다시금 잘 될 것이다라는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법칙과 원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적 원리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실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은 욥과 같이 더욱 깊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눔] 빌닷의 말과 논리대로 말했던 때가 있었나요?

[나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 2\_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욥은 크고 크신 하나님을 한낱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10절)** 욥은 규범적 지혜에 갇혀서,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지 않고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 못할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십니다.’는 고백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변론을 통해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에게 반문합니다.

“너희는 인간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나가 시더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며 (11절)**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가져가시면 인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기]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깊이 있게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나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거나, 고백했던 때가 있나요?

## 3\_간구할 뿐인 욥

욥은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15절)** 특히 이 본문에서 “**간구할 뿐이며**”로 번역된 “**하난(ḥn)**” 동사는 1:9과 2:3의 “**까닭 없이(qn)**”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의 뜻을 갖고 있지요.

다시 말해, 한 인간의 **올바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행동한 그대로 보응 받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까닭 없는 공훈과 은혜를 간구하는 욥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훈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공훈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까닭없는 공훈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십니다.

[나눔] 말씀을 통해 외당고 새롭게 고백하게 된 점이 있나요?